

도내 기업 절반 “내년 경제흐름 악화될 것”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 전주·익산·군산·전북 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126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내년도 경제흐름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49.2%)'이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으며, 29.4%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여부에 있어서도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아직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했다(75.3%)'라고 응답했으며, 그 중

전북상협, 경영환경 기업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여부 10곳 중 7곳 “완료 못했다”

19.0%는 '올해 안에 사업계획 수립이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한 기업에게 사업계획의 방향성을 묻은 결과 응답기업 중 58.1%가 '보수적'이라고 답했으며, '공격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41.9%로 조사됐다.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응답기업 중 94.4%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인 경영을 계획하게 되었다'라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국내시장의 포화화 투자처가 부재해서'라는 응답이 16.7%, '환율 변

동성의 확대 때문'이라는 응답이 5.6%였다.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불투명한 시장전망 때문에 매출목표와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코로나 등 현안 대응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지연을 겪고 있다'라는 응답이 35.8%로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내년도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우리지

<내년도 경제흐름 전망>



역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58.7%)'이라고 답했으며, '올해보다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28.0%를 차지했다.

내년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1.3%가 '내년도 수출실적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1.3%,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7.4%로 나타났다. 내년도 수출 실적의 악화 요

인으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위축'을 꼽은 기업이 89.5%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유가 및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단가 증가(22.8%)',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강화(7.2%)', '환율 변동폭의 심화(5.5%)', '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 추격 심화(4.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올해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판도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판로 확보,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친기업적 정책들을 전방위 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식품연, 실험동물 위령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지난 28일 실험동물연구동에 위령비를 건립하고 제막식과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번 '실험동물 위령비 제막식 및 위령제'는 그 동안 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과학 연구의 목적으로 희생된 실험동물의 넋을 기리고, 연구자들의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작년 위령제 현수식 개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위령비 제막식, 위훈훈 낭독,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식품연은 지난 2019년 10월 11일 식약처로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우수 동물실험시설(KELAF, Korea Excellent Laboratory Animal Facility)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철저한 심의와 의무교육을 통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식품연 실험동물연구동은 실험동물전문수의사(KDKCLAM, Kore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와 실험동물기술원(KLAT, Korean Laboratory Animal Technician) 자격을 보유한 전문적인 인력 인프라를 중심으로 수의학 적 관리와 효율적인 사육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동물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올해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에

익산시·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0년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에 익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소속직원인 이미경(익산시 회계과) 주무관, 심음민(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경영혁신부) 차장을 유공직원으로 선정했다.

조달청은 매년 조달사업 발전과 조달시책에 기여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서비스 이용실적, 조달실적 실적,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익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조달청 이용실적이 우수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미경 주무관과 심음민 차장은 평소 투철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조달서비스 이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김윤상 기자

LX, ISO37001 표준 인증 획득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가 부패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청렴경영을 강화한다. LX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지난 24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LX는 인증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어 부패방지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매뉴얼과 규정을 제정하는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LX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해 부패 예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자

최소 노후생활비 월 117만원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 '부부 기준 195만원 필요'

중고령자가 노후에 최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준 117만 원, 부부 기준 195만 원이 필요하며, 적정생활비로는 개인 기준 165만 원, 부부기준 268만 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2019년 수행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 이와 같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8차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 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하는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의미한다. 최소노후생활비는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적정노후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말한다.

노후생활비는 인구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의 경우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80대의 경우는 가장 낮았다. 또한, 성별이나 거주 지역별로도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후 생활비 수준이 조금 높았으며, 서울 거주자가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는 자보다 필요로 하는

노후생활비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지난 7차(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5.0~6.0%, 부부 기준 8.0~8.6% 증가해 부부 기준의 필요생활비 상승폭이 개인기준보다 높았다. 이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1국민 1연금 준비 필요성을 시사한다.

중고령자들이 응답한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92만 원임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으로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도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게 되어 노후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소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 9월로 계획된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보다 활발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신협중앙회는 지난 28일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에서 '신협 창립 60주년 기념 훈·포장 및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립 60주년 신협... 유공자 32명 포상

권오만 전신협중앙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등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28일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에서 '신협 창립 60주년 기념 훈·포장 및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상자는 총 32명으로 산업훈장(2명), 산업포장(2명), 대통령표창(4명), 국무총리표창(4명), 금융위원장 표창(1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10명)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산업훈장 수상자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신협중앙회 권오만 전 회장은 재임 기간(2006~2010년)동안 비경제 예금 한도 확대를 통한 서민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한편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토로 수익구조

다변화와 업무영역확대에 힘써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룩하며, 신협의 경영기반 확보에 크게 공헌했다.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故강정렬 전(前) 회장은 한국신협운동의 어머니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함께 신협운동을 시작하여 1960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신협인 성가신협을 창립했으며, 신협운동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신협협의회(WOCCU) 아시아 담당관 등을 역임하는 등 세계신협 발전과 신협 간 국제전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주상당신협(총부) 이성희 이사장, 늘푸른신협(제주) 고통환 이사장은 각각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신협발전에 공이 큰 전주

패마신협(전북) 양춘제 이사장 등 4명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철도신협(서울) 김기은 이사장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태릉신협(서울) 김기성 이사장과 9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전주중산신협(전북) 유학봉 이사장 등 9명도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60주년을 맞은 한국신협은 초창기 선구자들과 임직원의 헌결 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눈부신 성장을 이뤘고, 모범적인 글로벌 금융협동조합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며 "지난 60년처럼 신협은 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지역과 상생하며 국민들의 '평생 어부바'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올 하반기 수출유망 중기 41곳 지정

중기부 등 6개 기관

해외마케팅사업 등

수출지원 참여 등 혜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인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41개사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정해 정책적 연계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지역기업 51개사의 접수를 받아 지정했다.

이로써 전북중기청은 올해 총 71개사를 지정했으며, 이는 지난 2011년부터 평균 지정개수인 34개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시회 취소, 거래선 단절 등 악화된 중소기업의 여

건을 고려해 평가점수 조정 등 지정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현상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간접수출을 포함한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이면서 기존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사업 및 금융·보증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 혜택은 ▲중기부·중진공·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의 해외마케팅사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기보·신보·무보·수은 등 4개 기관의 보증 한도 및 비율우대 등 수출금융·보증 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여신 지원시 금리·환거래 조건 우대 등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평가 항목 일부를 완화하여 지정한 만큼, 기업은 우대 혜택을 잘 활용하여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올해 최고품질 벼에 '안평'·'알찬미'

밥맛 '우수'·재배 안정성 높아 농가들 '만족'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0년도 '최고품질 벼'에 '안평'과 '알찬미' 품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고품질 벼'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벼 품종들 가운데 밥맛, 외관품질, 도정특성, 내병충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 벼 품종으로 지금까지 18종이 등재돼 있다.

안평은 2018년에 육성한 고품질 벼로 밥맛이 우수하고, 쓰러짐(도복)과 각종 병해에 강해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중만생종이다. 영·호남 남부평야지 재배에 적합하며 쌀 수량은 537kg/10아르(a)로 대비품종 삼광보다 5% 많다. 밥맛도 삼광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확 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해

도 밥알이 희고 찰기가 있는 등 밥알의 고유 특성이 잘 유지된다. 2019~2020년 2년 동안 경상북도 경주에서 시험재배한 결과, 태풍, 장마 등에도 쓰러짐이 없었으며 키다리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해 재배 농가의 만족도가 높았다. 2022년까지는 국립식량과학원과 경주 시농업기술센터의 자체 종자 생산을 통해 소량으로 보급되며, 정부보급종 생산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 대량으로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알찬미는 2018년 경기도 이천시, 농업·농촌진흥청(RPC)과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연구(SPP)를 통해 육성한 고품질 벼로 밥맛이 뛰어나고

쓰러짐에 강하며 내병성을 갖춘 품종이다. 쌀 겉모양(외관)이 깨끗하며 단백질 함량이 5.0%로 낮고 식미감에서 쌀 수량은 538kg/10아르(a)로 대비품종 '화성'보다 0% 많다. 올해 연이은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해 재배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알찬미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오랜 기간 재배된 외래품종 '아까비레(추청)'을 대체하기 위한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 '아까비레' 재배면적의 15%를 '알찬미'로 대체했으며 2021년에는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알찬미는 내년까지 경기도 이천시의 자체 재종포와 농업실용화재단 등 외부 위탁재종포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2023년 이후에는 국가보급종 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